

B109 조간대 무척추동물의 공서 해조류 선택성

윤재술^{*} · 신만균
울산 녹수초등학교^{*} ·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해조류와 무척추동물의 공서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1997년 8월에서 1998년 7월 사이에 남동해안의 12지점의 조간대 하부에서 해조류의 표면에 공서하는 무척추동물을 동시에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해조류의 표면에 공서하는 무척추동물의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표본을 동정한 결과 29종의 대형해조류와 70종의 무척추동물이 동정되었고 이들의 종다양성과 우점도 및 밀도를 측정하여 해조류와 무척추동물 간의 선택적인 공서관계를 분석하였다. 채집된 29종의 대형해조류 중에서 갈조류인 *Sargassum fulvellum*, *S. thunbergii*, *S. micracanthum*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무척추동물이 높은 밀도로 공서함이 나타났고 특히, 복족류의 *Barleeia angustata*와 단각류의 *Hyale yaqui*, *Melita dentata*는 출현한 무척추동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높은 밀도로 공서하는 해조류를 선택함이 밝혀졌다.

B110 부안 다목적댐 호의 어류상 변화

김 익 수 · 양 혁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1995년에 완공된 부안다목적 댐의 어류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4월부터 9월까지 4지점에서 삼각망과 투망 등을 이용하여 어류를 조사하였다. 채집된 어류는 모두 7과 14종이었으며, 우점종은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와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이었다. 축조전 본 수역에서 흔히 출현하였던 벼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벼들붕어 *Macropodus chinensis*,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 꽁저구 *Chaenogobius urotaenius*는 본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댐 축조로 인한 종 다양성 감소가 현저하였다. 한편 한국 고유종이며 환경부 보호대상종인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는 축조전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최상류의 좁은 지역에 아주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대책이 요구된다.